

가정 예배 모범

- 2022_01_30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를 구원하시고 청지기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요 8장 42~59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44절)

▶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은 아버지인 마귀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이 항상 우선이기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하여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42, 47절)

▶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좋아보이는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유일하신 아들까지 보내어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